

# 가족끼리 연인끼리 공원에서 만나요

## 도심·공원에서 즐기는 야외 문화공연

지난 9일 옛 한국은행 자리에 조성된 광주 금남공원에서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대 앞에 마련된 의자와 계단에 자유롭게 앉은 시민들은 이날 문화지킴이 '광장'이 준비한 오페라 길라 공연에 빠져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최근 들어 광주 곳곳에서 다양한 야외 공연들이 정기적으로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길을 걷다가 잠시 발을 멈추고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무용수들의 아름다운 몸짓에 관심을 가져 보자. 또 간단한 먹거리를 챙겨 संग람공원 등에서 열리는 공연을 관람하는 것도 행복한 휴일을 보내는 방법 중 하나다.

## 도심 문화공간 확대... 주말 열린 문화·예술축제

▲도심에서 즐기는 공연  
광주시 동구청은 올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일주일에 세 차례 다양한 문화 공연을 마련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은 옛 전남도청 앞 민주소공원에서, 목요일은 충장로 4가 옛 조흥은행 앞, 토요일에는 금남공원에서 오후 6시 공연을 갖는다.

공연 장르는 마술쇼, 뮤지컬, 추억의 포크송, 각설이 폼바, 록 페스티벌, 인형극, 요술쇼, 사물놀이, 이색 악기 연주, 댄스 페스티벌 등 다양하다. 참가팀은 올 2월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예술단체·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선정했다.

지역 석망가들로 구성된 문화지킴이 '광장'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 다양한 주제로 정기공연을 갖는다. 그밖에 밴드마음, 한소리회, 극단 연인, j-매직, 향교무용단, 극단 꼬까신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원에서 만나요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은 지난 5월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오후 5시~6시30분) 문화근린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북구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심 속의 작은 음악회'를 진행 중이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타 동아리 '기사모'와 '양철매미'가 출연하며 청소년과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곡들을 골고루 준비

해 무대를 꾸민다.

쌍암공원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정기적으로 공연이 펼쳐진다.

오는 11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야외무대에서는 지역 국악단체들이 총출동하는 '우리 가락, 우리 마당'이 열리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은 창작국악실내악단 '도드리' 주관으로 마련된 '우리 가락, 우리 마당'에는 전통문화연구원 열우, 광주 가야금연주단, 이영애가야금병창예술단, (사)한국관소리보존회 광주지부, 박선옥 무용단 '돌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악연주팀 '가림취', 가야금 중주단 'Green 나래', 장원무용단, '리멤버 위' 등 젊은 국악인들로 구성된 신생 그룹들이 참신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5시 까지는 '철단골 열린음악회'가 열린다.

지난 4월 100회 공연을 넘어선 '철단골 열린음악회'는 이미 광산구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문화행사로 자리잡았다.

메인 프로그램은 지역출신 가수들과 출연자들의 무대며 부부 대항 게임, 어린이 댄스 경연대회, 시민 노래자랑 등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를 운영하는 게 특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최근 광주 시내 곳곳에서 야외 공연이 정기적으로 열려 문화의 향기를 전하고 있다. 사진은 매주 토요일 금남공원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축제 모습.

## 광주인권영화제 거둬 낸다

###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영화제로... 16일 조직위 발기인대회

광주인권영화제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영화제로 재탄생한다.

올해로 12회 짝을 맞는 광주인권영화제는 지난해까지 광주인권운동센터가 주축이 돼 진행했던 행사. 하지만 오는 11월1~3일까지 열리는 12회 행사부터 광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를 구성, 새롭게 출발한다.

우선 16일 오후 7시30분 금남공원에서 열리는 조직위원회 발기인대회로 새출발의 첫발을 댄다. 이날 행사는 노래공연, 영화음악 퀴즈, 인권영화 발사취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역대 인권영화제 상영작품 DVD와 OST도 판매한다.

광주인권영화제는 '인권'을 주제로 한 대한영화와 독립영화 등을 상영하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해왔으며 특히 광주에서 만든 작품을 보여주는 '광주의 시선' 부문을 통해 지역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포착해왔다.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9월초 정식으로 창립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062-529-757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在佛 원로화가 백영수씨 광주 방문

## “광주·목포 첫 작품활동 무대 이젠 자꾸 고향 한국이 그림다”

“목포와 광주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작품 활동을 하던 곳이라서 각별합니다.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처럼 마음이 포근합니다.”



올해로 30년째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양화가 백영수(85)씨는 지난 13일 광주를 찾았다. 여든을 훌쩍 넘은 나이지만 정정한 모습의 그는 이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다.

지난 1970년대 광주에서 가진 개인 전 이후 30여년 만에 광주에 온 백씨는 “애정은 있지만 특별한 연고가 없어 자주 오질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광주 방문은 최기원 광주평화방송 주간신부와

의 인연 때문이다. 10여년 전 프랑스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이후 그동안 소식을 주고 받으며 각별한 정을 나눴다.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난 백씨는 2살때 어머니와 일본으로 건너가 20년을 산 뒤 1944년 귀국했다. 오사카 미술학교를 졸업한 그는 목포에서 목포여중·고

미술교사를 하며 작품 활동을 병행했다.

20대 청년시절 고(故) 박철웅씨(전 조선대 총장)로부터 미술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그는 1~2년 정도 광주에서 활동하다 상경해 1977년 프랑스로 건너가 전까지 서울에서 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가족'

프랑스에서는 파리의 요미우리 아트센터 전속 계약 화가로 활동하는 등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에서 100여 차례의 초대전을 가졌다. 백씨는 한국전쟁 당시 부산 피난 시절 김환기, 이종섭, 유영국, 이규상, 장욱진 등과 함께 신사실과 동인으로 활동하며 한국 현대미술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몇년새 한국 방문과 머무르는 날이 부쩍 많아진 그는 “프랑스에서 하는 일이 많아 빠른 시일 내에 영구적으로 귀국하기는 힘들겠지만 이젠 나이를 먹었으니, 자꾸 고향 한국이 그림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일러스트레이터 박일재 개인전

### 20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

일러스트레이터 박일재(조선대 디자인학부) 교수가 '상상력은 또 다른 자연의 힘'이라는 주제로 14일부터 20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여미원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기법으로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박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자연과 사물을 다양한 색채로 그려내고 있다.

화가들이 잘 다루지 않는 재료인 마카(Marker)로 스케치한 '고향생각', '자연의 여인' 등 작품은 일러스트레이터로서 개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여미원에서'는 꽃과 여인을 전면에 배치한 뒤 디자인이 가미된 동양적인 문양을 화폭에 채움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융화를 연원

하고 있다. '일출봉', '무등산의 아침' 등은 자연을 바라보는 작가의 조형언어를 보여준다. 조선대 응용미술학과와 홍익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2006년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람회 상공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360-163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아동 참여극 '달려라 달려 달달달'

### 15일 문흥동 근린공원

광주 북구문화의 집이 아동 참여극 '달려라 달려 달달달'을 준비했다. 15일 오후 7시 30분 문흥동 근린공원 야외공연장.

극단 '마실'을 초청해 마련한 이번 무대는 지금까지 아동극이 보는 것에 머물렀던 데 반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마당극 형식의 작품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배우 손혜정씨가 아이

들과 생활하며 느낀 점을 바탕으로 직접 각본을 짜고 안무를 개발해 만든 작품으로 아이에게 좋은 문화 체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수한 입담으로 극을 이끌어가는 배우와 악사가 등장해 '무주구천동'의 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꾸러나가며 아이들은 주인공을 괴롭히는 이웃을 함께 꾸짖고, 주인공의 성공을 도우며 극에 참여하게 된다. 문의 062-269-14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시립예술단체 청소년 초청 특별공연

### 15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이 열린다.

국악관현악단 등 5개 광주시립예술단체가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공연을 마련했다. 15일 오후 2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이번 공연에서 국악관현악단은 음악가 양방언의 '제주의 왕자'를 연주하며 시립합창

단은 국악관현악단의 흥겨운 반주에 맞춰 '경복궁 타령' '울산 아가씨' 영화 '타이타닉' 주제곡 등을 선보인다. 또 교향악단은 금관 5중주 '수자 행진곡' '성자의 행진곡'을 연주하며 무용단은 발레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그밖에 국극단은 국악가요 '산도계비' '배 띄워라', 독무 '살풀이' 등을 선사한다. 문의 062-510-926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s

이제야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야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원단약국사거리 ♥에메1544-0600

M관	황진이 (15세)	최고급관
2관	슈렉3 (15세/한글자막)	
3관	슈즈더맨 (12세)/밀양 (15세)	
4관	캐리비안의 해적: 세상의 끝에서 (12세)/메신저 (15세)	
5관	슈렉3 (15세/한글자막)/황진이 (15세)	
6관	러브 and 트러블 (15세)	
7관	오션스 서틴 (12세)	
8관		
9관	캐리비안의 해적: 세상의 끝에서 (12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 주차장이 편한 극장 —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2관	황진이 (15세)
3관	황진이 (15세)
4관	데스위터 (15세)
5관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6관	못말리는 결혼 (15세)
7관	밀양 (15세)

금,토(2일간)심야상영

- \*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대 <3시간 무료> \*
- \*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

향토사랑 영화사랑 \*에메: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 뒷편)

1관	슈렉3 (전체/자막)
2관	아린(전용판) 날아라 허동구 (전체)
3관	슈렉3 (전체/더빙)
4관	슈렉3 (전체/더빙)
5관	러브&트러블 (15세)
6관	캐리비안의 해적-세상의 끝에서 (12세)
7관	황진이 (15세)/오션스13 (12세)
8관	밀양 (15세)
9관	황진이 (15세)
10관	오션스13 (12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남점 (107관) 절찬리 상영중 상영연결 방법 -1번(12관) -2번

즐거움이 가득 \*www.mct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메신저 (12세)
2관	러브&트러블 (15세)
3관	슈렉3 (12세)
4관	슈렉3 (12세)
5관	황진이 (15세)
6관	오션스13 (12세)
7관	밀양 (15세)
8관	데스위터 (15세)
9관	캐리비안 해적 (12세)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 타임렉스 회원만을 위한 전용청구 미연
- \* 전화예약 가능
-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새로운 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lcinema.co.kr\*

제일시네마

충장로 37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오션스13 (12세)
2관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3관	슈렉3 (12세)
4관	황진이 (15세)
5관	메신저 (15세)
6관	밀양 (12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주차타워)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